



뒤뚜르 어린이 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뒤뚜르의 시작, 정성 가득한 마음

뒤뚜르어린이도서관은 마을에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고자 시민단체와 뜻을 함께한 엄마, 아빠들이 함께 모여 만든 도서관입니다. 개관을 위해 후원금 행사를 하고, 사포를 문질러가며 직접 책꽂이도 만들고, 벽지 하나 손잡이 하나에 정성을 가득 담아 지금의 뒤뚜르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뒤뚜르'는 도서관이 있는 곳인 '후坪(後坪)동'의 옛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뒤뜰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넣은 이름입니다.

10년의 시간, 처음 그 마음처럼

2018년이면 뒤뚜르도서관이 10년이 됩니다. 도서관이 시작되었을 때 볼펜 하나, 종이 한 장 갖고 오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도서관이 만들어 질 수 있었고, 현재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에 아이들의 편안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처음 그 마음처럼 마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뒤뚜르어린이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이번 기회는 뒤뚜르에게 단비 같은 기회였습니다. 오래 쓴 전자기기들이 하나둘 때가 다했음을 알려왔습니다. 2008년 개관 때 들어온 냉온풍기는 몇 차례 수리 후에도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컴퓨터는 기본적인 책꽂이 프로그램 구동도 어려울 정도로 점점 사양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2017년, 긴급지원119를 통해 냉온풍기를 바꾸고, 노트북과 빔, 스크린이 생긴 후 뒤뚜르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 도서관이 조용하네요. 뭐가 바뀐 거지요?” 도서관에 들른 이용자의 한마디에 흐뭇한 미소가 생깁니다. 여름만 되면 ‘덜덜덜’ 소리를 내던 냉난방기가 바뀌고 나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들어도, 들어도 싫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 아이들이 배 깔고 누워 책을 읽는 모습도 이제는 고즈넉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쾌적하게 도서관을 누리고,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책이나 프로그램때문이 아니라 덥거나 추울 때도 도서관을 찾아주니 운영자들은 이럴 때 기쁩니다.

질적으로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노트북과 빔, 스크린이 생긴 후로 ‘어린이낭송의 밤’이나 ‘그림자인형극’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할 때 전보다 손쉽게 다양하게 음악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한 몫 하니 프로그램 분위기도 좋아져서 흡족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졸업생환송잔치를 했는데, 빔과 스크린이 생겼으니 별 어려움 없이 계획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영화에 푹 빠져서(널부러져서)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니 욕심이 생깁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보석영화들을 찾아서 상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 3월, 긴급 지원119사업을 신청을 할 즈음이었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해서 견적을 받아야 했는데 마침 지역시민단체 활동가한테 어느 한 냉온풍기 대리점을 소개받았습니다. 대리점 사장님이 도서관으로 오셔서 공간 확인 후 견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3개월이 흘렀으니 도서관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3개월을 지냈다는 얘가지요.

긴급지원119사업에 선정이 된 후, 3개월 만에 대리점에 전화를 했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 졸이며 구구절절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저 알았다며 다시 견적을 내주었고, 구입과 설치 과정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요구하는 데도 담담하게 처리해주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한창 바쁠 때인지라 짜증내도 받아들이리라 하고 지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대리점 직원인 설치기사님들도 꼼꼼하고 친절했습니다. 오랫동안 식구처럼 일해 왔다고 합니다. 잠시였지만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더운 날 일하느라 기사님들 얼굴에 땀이 죽죽 흐르기에 오미자 주스 한 잔 시원하게 내어 드리니 두런두런 사는 말씀도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소개를 하는가 보다 생각해봅니다.

뒤뚜르어린이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8년은 뒤뚜르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운영위원 중에는 초창기 멤버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 해 줌이 너무 고마울 따름이지요. 하지만 개원을 함께 했던 그 많은 분들의 역할이 작아질 수는 없지요. 하여 올해는 생일잔치 겸 개원 10주년 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10년을 살펴보며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의 10년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얻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작은도서관은 활동가(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있기에 그 의미가 있지요. 물론 아이들이 중심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책 세상을 열어주는 건 많은 자원 활동가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 작은도서관을 지켜 오던 활동가들의 힘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응원합니다. 진심으로.